

TOURISM SCOPE

E-book
Volume 24
2012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ISSN 1739-5089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 도시 네트워크인 TPO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적 관광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TPO는 현재 11개국 71개 도시정부와 36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Scope〉 구독 신청은

TPO 공식 홈페이지(www.aptpo.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4 TPO CULTURE & TRAVEL**
자오칭, 중국 광둥 성
길 따라 만나는 자연유산
- 06 TPO CULTURE & TRAVEL**
시모노세키, 일본
바다를 생각하다
- 08 SPECIAL TOUR**
다낭, 베트남
다낭에서 즐기는 따뜻한 겨울 휴식
- 14 CITY THEME TOUR**
대구를 즐기는 3가지 방법
3 Colors of Deagu
- 18 TREND & ANALYSIS**
저예산 여행의 기술
For Your Budget Travel
- 22 FESTIVAL CALENDAR**
- 25 TPO NEWS**
- 26 SPECIAL REPORT**
제5회 TPO 포럼 및 실무자 대표회의
에코투어로 세계유산을 지킨다


广州市旅游局
Tourism Administration of Guangzhou Municipality

360° 叹广州
新广州游
NEW GUANGZHOU TOUR

new
GUANGZHOU
NEW EXPERIENCE



CANTONESE CUISINE





자오칭, 중국 광둥 성

길 따라 만나는 자연유산

역사 & 문화의 고도이자 중국 100대 명소 중 하나인 치싱엔, 중국 최초 국가 자연 보호구이며 국제 생물권 보호구인 덩후 산을 품고 있는 자오칭 시의 매력은 알면 알수록 더 커진다. 광저우, 홍콩 등에서 3~4시간이면 이동 가능하니 당일 투어로도 손색없다.

4개 현과 2개 소시구, 2개 구를 가진 자오칭 시는 중국 광둥 성에 위치한 도시로, 광저우에서 광시좡족자치구로 통하는 시장 수운의 요지다. 회귀선이 지나는 지역으로 남아열대 습윤형 기후는 자오칭을 산과 나무가 많은 푸른 도시로 만들었고, 치싱엔(七星岩), 덩후 산(鼎湖山) 등 자연 경관이 특히 아름다워 중국 국가급 문화 유적지도 풍부하다. 2200년에 걸쳐 형성된 역사·문화 유적지와 39개 소수민족의 삶을 엿보는 즐거움도 오직 자오칭에서만 느낄 수 있다.



그림 같은 절경 치싱엔 七星岩 · 싱후 星湖

‘관광지’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총면적 10만km², 호수 면적 6만km²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치싱엔과 싱후는 단연 자오칭 여행의 하이라이트다. 4개의 큰 호수를 연결하는 제방은 물안개가 열게 깔린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 산책하기에 로맨틱한 장소! 치싱엔은 4개 호수 가운데 위치한 7개의 큰 바위를 일컫는데, 각 바위마다 이름이 붙어 있다. 호수에서 솟아오른 듯 우뚝 서 있는 바위를 보고 있으면 겨울밤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이 떠오른다. 그래서인지 ‘치싱엔’이란 이름에 얽힌 전설에 믿음이 간다. 입장 티켓을 보면 7개의 봉우리가 누운 부처상의 모습과 유사한데, 1년에 단 한 번 태양이 부처상의 입 부분으로 저문다고 한다. 치싱엔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치싱엔의 꼭대기로 향해야 한다. 7개의 중심에 위치한 천주암에 오르면 아름다운 호수 전경은 물론이거니와 날씨 맑은 날은 호수 건너 자오칭 시까지 볼 수 있다. 치싱엔의 8개 동굴은 여름에 서늘하기 때문에 7~9월 더위를 피해 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동굴 내부에는 붉은색으로 각종 시문이 쓰여 있다. 워낙 넓기 때문에 걷기 힘들다면, 치싱엔 내부를 운행하는 미니 버스와 유람선이 지친 몸이 힘이 돼준다.



01



02



03



04



05

01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치싱옌(七星岩). 02 덩후 산(鼎湖山) 정상에는 커다란 향로 조형물이 있다. 03 치싱옌의 8개 동굴에는 붉은색 글씨로 시구가 쓰여 있다. 04 광둥 성 바과촌은 저장 성 진화(金华)에 위치한 주거 바과촌(諸葛八卦村)에 비해 따뜻하고 정감 어린 주민들이 여행자를 살갑게 맞아준다. 05 시원하게 쏟아지는 덩후 산의 폭포. 이 폭포는 자오칭 우표 디자인에도 쓰일 만큼 유명하다.

자오칭의 명물

단연 端硯

자오칭에서 기념품으로 단 하나만 구입할 수 있다면 서슴없이 '벼루'를 집을 들겠다. 당나라 때부터 자오칭에서 생산된 단연(端硯)은 중국 4대 벼루에 드는 최상품. 단연 혹은 단계연(端溪硯)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인지 자오칭 곳곳에 단연이라는 벼루를 파는 상가나 공장들이 수백 개나 밀집해 있고, 상점마다 돌을 갖다놓고 벼루를 직접 만드는 장면도 볼 수 있다. 단순히 먹을 가는 벼루가 아닌 예술품에 버금가는 하나의 완벽한 제품을 소유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 가격은 작은 것은 150~200위안에서 큰 것은 5000위안 이상 하는 것도 있다.

자오칭의 옛 건축물

시장 강(西江)변을 따라가다 보면 자오칭의 오래된 옛 건축물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웨장러우(閱江樓)로 한나라 시대에 건설됐으며 1641년 개축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현재는 혁명사 기념관으로 운영 중이다. 웨장러우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는 1582년 명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약 58m 높이의 충시타(崇禎塔)를 볼 수 있다. 팔각정을 9개 쌓아놓은 듯한 형상을 띠는데, 내부 입장이 가능하니 망루에서 시장 강을 바라보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탑 인근에는 서양풍 건물이 많은데 중국 자오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친 마테오 리치 신부가 기거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광둥(廣東) 4대 명산

덩후 산 鼎湖山

중국에서 제일 먼저 국가 자연 보호구이자 국제 생물권 보호구로 지정된 덩후 산은 광둥 성 4대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힌다. 400여 년에 걸쳐 완성된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은 보는 이의 입을 떡 벌어질 정도다. 등산로는 주로 계곡 옆으로 나 있으며, 공원 입구에서 비수담(飛水潭) 폭포, 산속 호수인 천호(天湖), 호접곡(蝴蝶谷) 원시삼림(原始森林) 지대를 지나 경운사(慶雲寺)를 거쳐 공원 입구 갈림길까지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음이온 방출량이 상당히 상쾌한 트레킹을 책임진다. 정상에서 대형 향로와 벼루 조형물도 볼 수 있다.

생소하지만 정겨운

광둥 성 바과촌 八卦村

구궁팔괘(九宮八卦)에 맞춰 잘 짜인 마을은 8갈래의 작은 통로마다 사당과 민가가 하나의 벽을 맞대고 이어져 있다. 자오칭 시내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 찾아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대절하는 편이 좋다. 1~2시간 정도 둘러보면 충분할 정도. 이곳의 정식 명칭은 가오야오 후이룽 리 차 마을(回龍鎮黎槎村)로 종종 중국 저장 성(浙江省) 진화(金华)에 위치한 주거바과촌(諸葛八卦村)과 비교되기 일쑤지만, 주거바과촌에 비해 덜 상업적이어서 그런지 오가는 사람마다 여행자를 살갑게 맞아준다.

바다를

시모노세키, 일본
생각하다

섬나라 일본의 또 다른 바다를 만난다.
 잔잔한 바닷물이 힘 있게 흐르는
 야마구치 현의 항구 도시, 시모노세키.
 직접 보고, 듣고, 맛보며, 곳곳에서
 마주한 시모노세키는
 언제나 바다를 생각하게 한다.
 시원하게 뻗은 간몬 대교가
 혼슈와 규슈를 잇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오가는 배들은
 차곡차곡 푸른 흔적을 쌓는 그곳.
 바다를 품어 바다를 닮은
 시모노세키를 찾았다.

시시각각 바다의 빛

가이쿄 유메 타워 海峡ゆめタワー

드넓은 바다를 한눈에 담는다! 높이 143m의 가이쿄 유메 타워는 명실상부한 시모노세키의 랜드마크다. 감각적인 디자인을 뽐내며 어떤 빌딩보다 키가 높아 시내 어디에서든 눈에 들어오기 때문.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리로 만들어진 원형 전망대에 오르면 혼슈와 규슈 사이에 자리한 간몬 해협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빛과 그림자에 따라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털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뀌는 바다의 풍광을 볼 수 있다. 타워는 국제전시 회의 시설인 시모노세키 가이쿄 메세(下關 海峡メッセ)의 일부로 어둠이 내린 밤에는 요일마다 다른 7가지 색을 비추며 멋들어진 야경을 뽐낸다. 가이쿄 유메가 지닌 '해협의 꿈'이란 뜻이 무색하지 않은 풍경이다.

주소 山口県下関市豊前田町3丁目3-1 전화 81-83-231-5600
 운영시간 09:30~21:30 입장료 성인 600엔, 소인 300엔 홈페이지
 www.yumetower.jp



해전의 전설 아카마 신궁 赤間神宮

아주 먼 옛날의 전설적인 해전을 간직한 아카마 신궁. 지금으로부터 약 820년 전,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두 무사 집단 헤이시(平氏)와 겐지(源氏)가 패권을 둘러싸고 간몬 해협과 가까운 단노우라(檀ノ浦)에서 최후의 결투를 펼쳤다. 결투에서 패한 헤이시 일파는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는데, 그때 당시 마지막 왕이었던 안토쿠 왕(安徳王)이 바로 아카마 신궁의 주인이다. 강렬한 붉은색에 새하얀 흰색이 섞인 독특한 목조 건축물과 초록빛 연못, 돌을 깎아 만든 탑 등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은 또한 조선통신사가 상륙하면서 머물렀던 숙소로 건너편 공원에 조선통신사 기념비가 남아 있다고 한다. 신궁 내부에는 안토쿠 왕릉과 헤이시 일파를 모시는 시치모리즈카(七盛塚) 등이 있으며, 매년 5월에는 해전을 기리는 축제 '센테이사이(先帝祭)'를 연다.

주소 山口県下関市阿弥陀寺町 4-1 전화 81-83-231-4138 입장료 무료

싱싱한 맛의 세계 가라토 수산시장 唐戸市場

시모노세키의 싱싱한 맛이 궁금하다면 가라토 수산시장으로 달려가자. 현지에서 소문난 요리사들도 찾는 해산물 도매시장으로 경매 현장이 펼쳐지는 활기찬 시장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복어, 성게, 오징어, 전복 등 다양한 어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관전 포인트는 역시 시모노세키의 명물인 복어! 시모노세키는 일본에서도 복어 취급량이 가장 많으며, 매해 2월에는 복어 축제를 열기도 한다. 덕분에 복어회, 복어찌개, 복어튀김, 복어지느러미술 등을 맛볼 수 있는 것. 주로 1층에서 사서 2층에서 먹는 구조인데, 금요일부터 일요일 점심시간에는 갓 잡은 재료로 신선한 요리를 선사하는 포장마차가 들어선다. 저렴하면서도 알찬 100엔 스시가 유명하다고. 좀 더 바다의 맛을 구경하고 싶다면, 가라토 수산시장 부근에 있는 시사이드몰(Sea Side Mall), 가문와프(唐戸市場)를 방문하자. 해산물 고급 레스토랑과 토산품점 등 여러 매장이 들어서 있다.

주소 山口県下関市唐戸町5-50 전화 81-83-231-0001 운영시간 월~토요일 10:00~15:00, 일요일 07:00~15:00 홈페이지 www.karatoichib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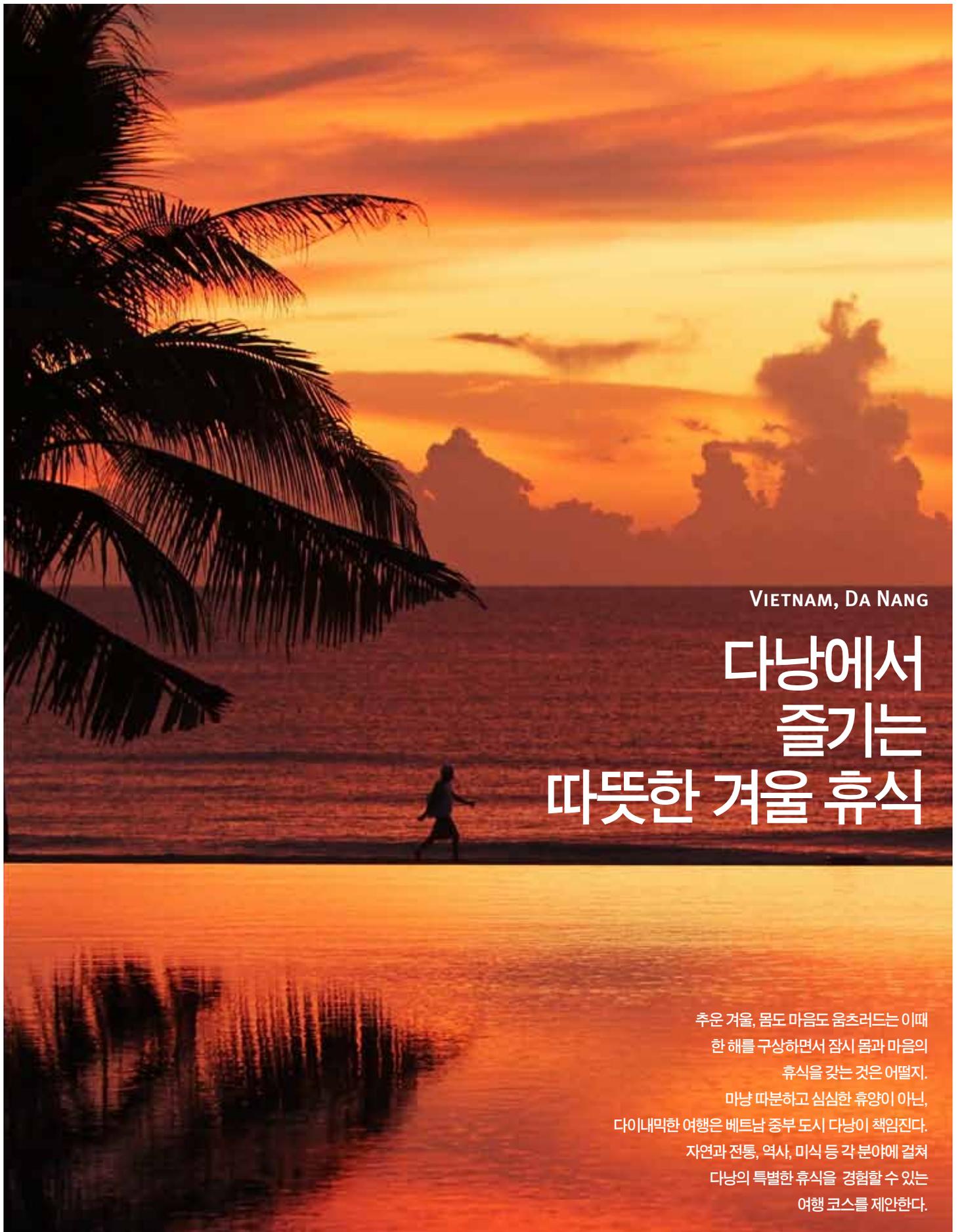


해양 동물과의 조우 가이쿄칸 海響館

푸른 물결을 만끽하며 바다 터널을 걷고, 그 너머로 생동감이 가득한 해양 동물을 만나는 시간. 가지각색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는 시모노세키 시립 수족관이다. 정식 명칭은 시모노세키 해양과학 박물관. 세계 100여 종의 다양한 복어류를 비롯해 해파리, 상어, 바다거북, 펭귄, 돌고래 등 400종 1만 5000여 마리의 해양 동물을 만난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흰긴수염고래. 65개 수조에는 총 수량 2400톤에 이르는 바닷물이 담겨 있는데, 간몬 해협을 형상화한 아쿠아 시어터(Aqua Theater)가 인상적이다. 바다사자와 돌고래가 공연하는 깜찍한 무대와 더불어 바다표범과 펭귄의 식사 시간 관람은 보너스다.



주소 下関市あるかぼーと6番1号 전화 81-83-228-1100 운영시간 09:30~17:30 입장료 성인 2000엔, 소인 900엔 홈페이지 www.kaikyokan.com



VIETNAM, DA NANG

다낭에서 즐기는 따뜻한 겨울 휴식

추운 겨울,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이때
한 해를 구상하면서 잠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갖는 것은 어떨지.
마냥 따분하고 심심한 휴양이 아닌,
다이나믹한 여행은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이 책임진다.
자연과 전통, 역사, 미식 등 각 분야에 걸쳐
다낭의 특별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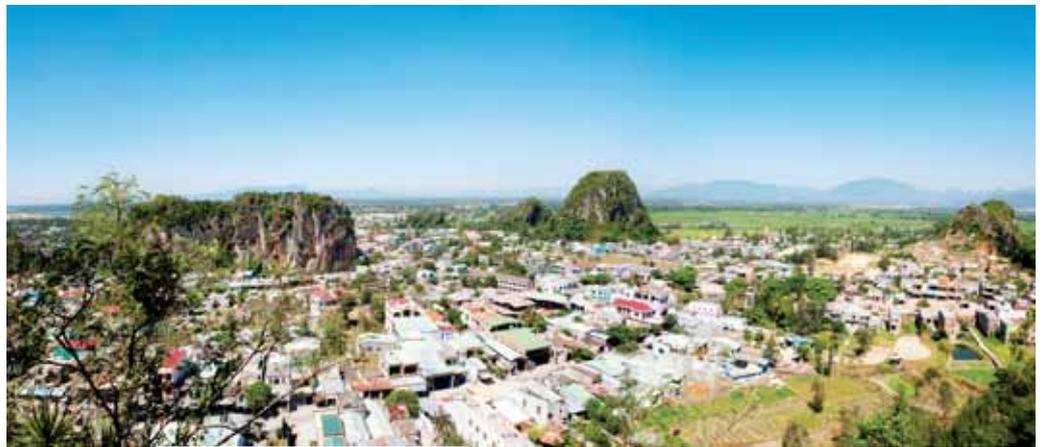
01. 손 트라 페닌술라(Son Tra Peninsula)에서 내려다본 다낭 시내 전경. 02, 03 다낭 시내와 달리 손 트라 페닌술라에서는 울창한 열대우림을 볼 수 있다. 사원을 장식하고 있는 정갈한 분재 화분과 67m 불상, 그리고 사원 앞으로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링 린(Linh Ung) 사원. 04 다낭에서 응우 한 선(Ngu Hanh Son) 지역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처만 다닐 수 있는 다리(Nguyen Van Troi Bridge)와 오토바이 다리(Tran Thi Ly Bridge)로 나뉘어 있다. 05 불벌더위가 한풀 꺾이는 저녁나절 해변은 휴식을 취하는 사람으로 북적댄다.

Course 1

다낭의 자연을 만나다

산과 바다 탐사 코스

다낭은 자연과 도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항구 도시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 최대 기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 한가운대를 유유히 흐르는 강과 도시 외곽을 살포시 감싼 바다, 그리고 녹음 짙은 산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중부 베트남 최고의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다.



거대한 대리석 산

응우 한 선 Ngu Hanh Son(Marble Mountains)

이름 그대로 산 전체가 대리석으로 이뤄진 산. 처음에는 힌두교 성지였지만 지금은 불교 성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성스러운 오행 산이라고 부르며 경외한다. 나무(Moc Son), 금속(Kim Son), 흙(Tho Son), 불(Hoa Son), 물(Thuy Son)을 모티프로 이름 지어진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관광객들이 오르내리는 투이 선(Thuy Son)은 응우 한 선 전체를 둘러보기에 좋은 전망대로 천연 석회암 동굴과 사원이 많다. 동굴로 들어가면 안이 꽤 어두우므로 손전등을 챙기는 것이 좋다. 산을 오르면 마을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고풍스런 역사가 살아 있는 절이 흩어져 있어 그 아름다움을 한층 풍요롭게 만든다. 산 밑의 마을에는 대리석 공방이 많아 대리석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구입도 가능하다.

주소 Princess Huyen Tran Street, Hoa Hai Ward, Ngu Hanh Son District
입장료 1만 동



기네스북 등재 케이블카 바나 힐 Bá Ná Hills

가장 긴 거리(5042.62m)와 높은 해발고도(1291.81m), 두 건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나 힐의 케이블카는 명실상부한 다낭의 랜드마크다. 연평균 17~20℃를 자랑하기 때문에 정상에 오르면 서늘하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힐 수 있다. 케이블카에 탑승하는 15분 동안은 아래로 보이는 열대우림과 계곡, 폭포 덕분에 지루하지 않다. 2009년 3월 오픈 이래 5개의 호텔(Morin, L'Indochine, Debay, L'Jardin, Hoa Rừng)과 1개의 빌라(Biệt thự Hoàng 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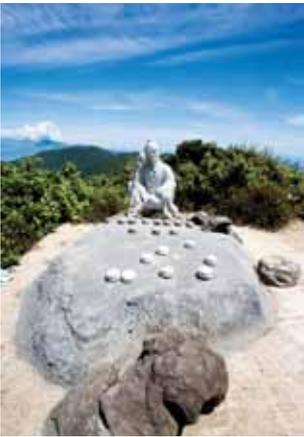
그리고 소규모지만 놀이공원도 오픈해 가족 여행자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2개 노선의 케이블카를 타고 여행할 수 있으며, 높이 27m의 거대 불상이 특징인 링 응 템플(Chùa Linh Ứng)과 티엔 폭포(Thác Tóc Tiên), 중세 프랑스 마을을 재현한 프랑스 빌리지(Khu Làng Pháp) 등도 둘러볼 수 있다.

운영시간 입구-바나 07:30~21:00, 드베이-모린 07:30~21:30 요금 케이블카 성인 40만 동, 어린이 32만 동/ 판타지파크 무료(4D, 5D, Mega 360은 별도 입장료 있음) 홈페이지 www.banahills.com.vn



사계절 사랑받는 해변 다낭 비치 Da Nang Beach

바다에 면한 다낭 해변은 다낭 베이(Da Nang Bay)와 손 트라(Son Tra), 이스트 시(East Sea)의 세 개 지역으로 나뉜다. 다낭 베이는 다낭 중심지 북쪽에 펼쳐진 해변으로 남오, 슈안 티우, 탄 빈(Nam O, Xuan Thieu, Thanh Binh)으로 나뉜다. 총 12km의 해변은 해안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이곳에서 한 강과 연결되는 대교와 항구를 볼 수 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비치는 이스트 시로 20km 넘게 뾰얀 속살을 내비친 해변은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로 북적댄다. 마지막 해변은 손 트라 지역으로 모래사장만으로 펼쳐진 이스트 시와 달리 푸르게 숲이 우거진 곳. 반도를 둘러싸고 6개의 비치(Tien Sa, Dong Hai, Bai But, Bai Rang, Bai Bac, Bai Nam)가 저마다 절경을 뽐낸다. 수영과 낚시, 트레킹, 다이빙 등 다양한 투어 상품에 포함돼 있는 액티비티 비치다.



다낭 시민의 휴식처 한강 Han River

다낭 시 중심을 유유히 흐르는 한 강은 시의 상징이자 휴식처, 그리고 시민들의 놀이터가 되어준다. 저녁 무렵부터 하나 둘씩 켜지는 다리의 조명은 한강의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해준다. 현재 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총 4개. 그중 가장 예쁜 다리는 손 한 다리(Son Han Br.). 이 다리 인근으로 밤이면 놀이기구, 노점상들이 줄줄이 늘어서 심심하지 않다.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돼 강가 주변에 산책로, 카페와 클럽, 호텔과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다.



도심 속 자연 손 트라 페닌슐라

Son Tra Peninsula

시내 중심에서 8km 정도 떨어진 손 트라 페닌슐라는 길이 15km, 너비 5km, 4370ha의 열대우림이 펼쳐진 곳으로 복잡 복잡한 도시를 떠나 울창한 자연을 만날 수 있다. 봉긋한 버섯 모양을 닮은 해발 696m의 반도를 차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다. 산 정상에 오르면 다낭 베이와 이스트 시, 다낭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절경이 나타난다. 67m의 흰 불상과 섬세한 조각상이 나열된 린 령(Linh Ung) 사원 아래쪽으로는 티엔 사(Tien Sa) 리조트와 해안 도로가 있다.



베트남 최고 드라이브 코스 하이 번 고개 Hai Van Pass

베트남어로 ‘하이’는 ‘바다’, ‘번’은 ‘구름’이라는 말로 ‘구름 낀 바다 고개’라는 뜻을 지닌 해발 600m의 고개다. 특별히 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에 다다랐을 때 펼쳐지는 수려한 산악 풍경과 해안 풍경이 아름답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고개를 기점으로 남북의 날씨가 확연히 차이 난다는 점이다. 이 고개를 사이에 둔 남과 북은 기후와 사람들의 기질까지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이 고개는 베트남전 당시 전략 요충지로 정상에는 당시 사이공 정부군의 벙커가 남아 있는데, 벙커 벽에는 치열한 전투의 흔적인 탄흔이 박혀 있다.

*** ACCOMMODATIONS**

- 랑꼬 비치 리조트 Lang Co Beach Resort



다낭과 후에의 절경 지역에 위치한 4성급 리조트. 랑꼬 해변 최고의 명당자리에 위치해 바다와 산, 숲이 조화를 이룬 해변의 시원함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57개 딜럭스 빌라 & 스위트와 27개 버젓룸, 2개의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정감한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된다.

주소 Lang Co Town, Phu Loc District, Thua Thien Hue Province 전화 054-873-555 홈페이지 www.langcobeachresort.com.vn

- 퓨전 마이아 리조트 & 스파 Fusion Maia Resort & Spa



5성급 리조트인 이곳이 특별한 점은 투숙객 전원에게 하루 2회 스파가 무료 제공된다는 점. 방이나 레스토랑이 아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아침 식사를 주문할 수 있는 것이다. 전 객실 모두 독채형 풀빌라로 넉넉한 개인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주소 Truong Sa Street, Khue My Ward, Ngu Hanh Son District, Da Nang 전화 0511-396-7999 홈페이지 www.fusionmaidanang.com

Course 2

다낭의 전통을 만나다

아트 쇼핑 루트

베트남 다낭에는 시대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템이 많다.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독특한 양식의 미술품과 실크 자수 제품, 정교한 대리석 조각이다. 유서 깊은 상점에는 세대를 이어 전승된 품질 좋은 상품이 가득하다.



바늘과 실이 빚어낸 예술

XQ 실크 자수 아트 센터 XQ Da Nang Silk Hand Embroidery Arts

색실로 한 땀 한 땀 수놓아 완성된 액자는 보기만 해도 감동이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색과 사물의 농담 표현 역시 예술급! 작품 판매와 갤러리, 일반인을 위한 6개월 코스 강좌도 운영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둘러보자. 다낭 외에 하노이, 후에, 호이안, 나짱, 호찌민에도 매장이 있다.

주소 39~41 Nguyen Thai Hoc St., Hai Chau Dist., Da Nang 전화 0511-381-6847



낯설지만 색다른 매력 베트남의 그림 Vietnam's Painting

프랑스 식민지 시절 인상파 회화의 영향, 베트남 전쟁 시기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최근의 서구적 작업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 미술은 그래서 독특하다. 상당한 컬렉터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아티스트는 물론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의 시장 가치에 주목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정의 깊이가 느껴지는 터치와 원색적이면서도 뉘앙스가 있는 색채에 마음이 끌린다.

구매욕 자극, 대리석 조각

티엔 히에우 Tien Hieu

마블 마운틴 주변에는 대를 이어 대리석을 가공하는 장인들이 모여 운영하는 티엔 히에우 상점이 있다. 마블 마운틴에서 가져온 질 좋은 재료를 숙련된 장인이 섬세 좋게 다듬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많은 편이다. 기념품으로 알맞은 작은 조각에서부터 큰 조각까지 다양한 대리석 작품을 볼 수 있다. 국제 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소 634 Le Van Hien St., 42 Huyen Tran Cong Chua St., Ngu Hanh Son District, Danang City 전화 0511-3967-789 홈페이지 www.tienhiesculpture.com.vn



골프치기 좋은 도시 다낭

몽고메리의 디자인 숨씨 몽고메리 골프 클럽 Montgomeire Golf Club



세계적인 골프 선수 콜린 몽고메리(Colin Montgomeire)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해 유명해진 다낭의 대표적인 컨트리 클럽이다. 1년에 한 두 번은 꼭 다낭을 찾아 이곳에서 골프를 즐긴다. 심플한 디자인의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클럽 내부에 들어서면 콜린 몽고메리가 직접 사인한 셔츠와 골프공 등이 전시돼 있다.

주소 Dien Ngoc Commune, Dien Ban District, Quang Nam Province 전화 0510-3941-942 홈페이지 www.montgomerelinks.com

바다가 들리는 골프 클럽 다낭 골프 클럽 Danang Golf Club



다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남부 해변에 위치한 다낭 골프 클럽은 다낭의 어느 골프 클럽보다 환상적인 경관을 자랑한다. 해변과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너머로 샷을 날리면 여행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질 듯하다. 날씨가 좋으면 드라마틱한 위용을 자랑하는 마블 마운틴까지 환상적인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진다.

주소 Dien Ngoc Coastal Str, Hoa Hai Ward, Ngu Hanh Son District, Danang City 전화 0905-69-39-39 홈페이지 www.dananggolfclub.com

Course 3

다낭의 과거를 만나다

역사 탐방 코스

다낭의 역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다. 12~15세기는 참족의 중심지로, 프랑스 지배 시절에는 호이안과 더불어 중부 베트남의 주요 항구로, 베트남전쟁 때는 미군의 전진 기지로 사용됐다. 역사만큼이나 드라마틱한 볼거리에 신선한 관광 요소가 더해진 코스가 흥미롭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 카오 다이 사원 Cao Dai Temple

일본 만화 <20세기 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커다란 외눈인 '천안(天眼)'을 숭배하는 카오 다이교(敎)의 사원. 천안은 하나의 커다란 눈으로 세상의 진리를 굽어본다는 의미라 한다. 1910년대 초기 베트남에서 생겨난 신흥 종교로 세계 5대 종교(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는 하나라는 기본 이념을 나타내듯 사원 내부에는 타 종교 성인의 모습도 볼 수 있다. 하루에 4번(05:30, 11:30, 17:30, 23:30) 신도들의 예배가 진행된다.



로맨틱 핑크 성당

다낭 성당 Chinh Toa Da Nang

1923년 프랑스인이 세운 천주교 성당이다. 유럽풍의 세밀한 장식과 엘레강스한 디자인, 스테인드글라스와 핑크빛 색채감이 감상 포인트. 웅장하면서도 장엄한 내부는 주말이면 미사 드리는 신도들로 북적인다. 미사가 없는 날은 정문이 닫히므로 뒤쪽 주춧돌이 골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속이 알찬 박물관

참 조각 박물관 Bao Tang Cham(Cham Sculpture Museum)

다낭의 관광 명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4~13세기에 번영했던 참파 왕국의 방대한 조각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베트남 중부의 참파 왕국은 한때 캄보디아 지역의 앙코르 왕국을 점령할 정도로 융성했다. 1915년 프랑스의 동아시아 학회에서 설립했으며 총 3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주요 유물은 팜남 지역에서 수집된 것으로, 전시 구역은 아홉 개 시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부분 시바, 브라마, 비슈누, 가루다 같은 힌두교 신을 형상화한 사상으로 만든 조각품이다. 주소 01, Trung Nu Vuong St., Da Nang 전화 0511-347-0114 운영시간 07:00~17:00 입장료 성인 3만 동, 청소년 5000동, 6세 이하 무료



※추천! 다낭 레스토랑

• 트랑, 로컬 푸드 Tran, Local Food

쌀국수를 비롯한 베트남의 로컬 푸드를 맛보고 싶다면, 손 한 다리(Son Han Bridge) 인근의 트랑이 제격이다. 가격도 저렴할뿐더러 다낭 특유의 흥겨운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주소 300 Hai Phong, Danang 전화 0511-384-9022 운영시간 06:15~22:15

• 흥 투 레스토랑 Hoang Thu Restaurant

레스토랑 밖으로 펼쳐지는 한 강의 야경과 시원한 강바람이 일품인 시푸드 레스토랑. 때문에 낮보다 밤에 가면 더 좋다. 주문하는 모든 해산물은 4가지 이상의 조리 방식이 옵션으로 되어 있어 입맛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주소 Lo 40 Tran Hung Dao, Danang 전화 0511-391-7999 홈페이지 www.hoangthurestaurant.com

• 압사라 레스토랑 Apsara Restaurant, Da Nang

과거 베트남 중남부 지역을 지배했던 참(Cham)족의 전통 공연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 덕분에 저렴한 가격임에도 여행자들에게는 가볼 만한 곳으로 입소문을 탔다.



주소 222 tran Phu St., Danang 전화 0511-561-409 운영시간 10:00~14:30, 17:00~22:00 홈페이지 www.apsaradanang.com

• 블루 웨일 레스토랑 Blue Whale Restaurant

비치에 위치한 시푸드 레스토랑으로 매일 아침 직배송된 해산물을 수조에 넣어 신선한 상태로 유지한다. 인근에 호텔&리조트가 많기 때문에 푸른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자리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앉기 힘들다.



주소 Son Tra-Dien Ngoc St., Danang 전화 0511-942-777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bluewhale.com.vn

대구를 즐기는 3가지 방법

3 Colors of Deagu



부산의 화려함과 경주의
예스러움에 비하면 대구는
이렇다 할 특징이 단번에
떠오르지 않는 도시다.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만큼 다양한 색을 가진
도시도 드물다.
역사가 담겨 있는 골목길과 지친
심신을 달래줄 자연, 북적대는
패션 거리와 짜릿한 놀이공원을
오밀조밀 담고 있는 대구를
즐기는 3가지 방법.



Time Travelling in Daegu

미국 선교사가 살았던 나즈막한 언덕과 3·1 운동의 숨결이 급박하게 흘러들던 계단길, 그리고 민족 저항 시인이 살다 간 고택까지. 이야기와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골목길을 따라가는 대구 여행.



마음이 쉬어가는 언덕 동산 & 의료·선교 박물관

‘동산(東山)’은 도심에 위치한 야트막한 언덕이다. 완만한 경사를 오르면 초록빛 담쟁이 덩굴로 가득 덮인 붉은색 벽돌 건물과 고풍스러운 서양식 정원이 펼쳐지는데, 1899년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선교사 스위트, 블레어, 챔니스의 주택 3채가 지금은 의료·선교 박물관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근대 역사와 건축학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적하고 조용해서 도심 속 사색 공간으로도 손색 없다.

주소 대구시 중구 동산동 194 전화 053-250-7100
운영시간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 휴관



김대건 신부를 찾아라! 계산성당

도심 한가운데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국적인 건물이 등장했다. 프랑스인의 설계에 중국인의 기술이 더해져 완성된 작품으로, 서울 명동성당과 평양 관후리성당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지어진 고딕 양식 성당이다. 두 개의 첨탑과 전면을 장식한 장미 모양 창이 돋보이고, 색색의 스테인드글라스가 만들어내는 빛 물결도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한 가지 팁! 우리나라 최초 신부 김대건의 한복 차림을 스테인드글라스로 만나볼 수 있으니, 내부를 둘러보며 찾아보자.

주소 대구시 중구 계산 2가 71-1 전화 053-254-2300 홈페이지 www.tgkyesan.com



길 위에 새겨진 역사 3·1운동길

동산에서 계산성당으로 가는 내리막에 90여 개의 계단이 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집결지로 향하던 학생들이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용했던 길이다. 이른바 비밀 통로였던 셈. 긴박했을 당시 상황을 생각하며 이곳을 걷는다면, 지금의 평화로운 풍경이 새삼 달라 보일지도 모른다.

찾아가는 법 의료·선교 박물관이 있는 동산에서 계산성당으로 내려가는 좁은 골목



시인의 소박함 이상화 고택

독립을 2년 앞둔 1943년, 민족 시인 이상화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본채와 사랑채로 나뉜 ‘ㄱ’자 한옥으로, 마당에는 감나무와 석류나무, 그리고 반질반질한 장독대가 소박하게 어우러진다. 그의 대표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나의 침실로’는 대구를 매개로 했다. ‘빼앗긴 들’은 수성구의 별판을, ‘내 침실’은 남산동의 성모당을 일컫는다.

주소 대구시 중구 계산 2가 84 전화 053-256-3762
운영시간 화~일요일 10:00~17:30, 월요일 휴관



It's Time for Healing

팔공산을 대표 주자로 내세운 수려한 자연을 병풍처럼 둘러친 대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한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조선 시대부터 한약재 공급 중심지였던 이력 덕분에 한방 관련 스폿도 다양해 건강한 여행에 제격이다.

한방의 모든 것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한의원과 약방이 빼곡히 들어선 약령시 골목. '걷는 것만으로도 치유된다'는 대구 시민의 우스갯소리처럼, 근처만 가도 한약재 냄새가 진하게 풍겨 나온다. 골목의 350여 년 역사가 궁금하다면 한의약 박물관을 방문해보자. 한약재 시장을 재현한 한방 역사 전시실과 한방 비누, 미스트를 만들 수 있는 한방 체험실이 마련돼 있다. 특히 여행으로 고단한 당신의 발을 가볍게 만들어줄 한방 족탕 체험이 하이라이트. 당귀, 박하, 애엽 등으로 만든 족욕제(1만 원)를 구입하면 15분간 체험할 수 있다.

주소 대구시 중구 달구벌 대로 415길 49 전화 053-253-4729 운영시간 화~금요일 10:00~18:00, 토·일요일 10:00~17:00, 월요일 휴관 홈페이지 <http://dgom.daegu.go.kr>



건강해지는 시간 팔공산 약초탕

팔공산의 풍광을 눈에 담으면서 온몸의 독소를 풀어낼 수 있는 곳. 각자의 신체 증상에 맞춰 약초를 선택한 뒤, 개인 욕조에 풀어 목욕을 즐기는 방식이다.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이나 만성 피로, 신경통과 관절염 등에 효과적이어서 입소문이 자자하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찜질방과 피부관리실, 식당 등 편의시설을 살뜰히 갖추고 있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주소 대구시 동구 중대동 38-1 전화 053-982-2030 운영시간 09:00~22:00



속부터 건강하게! 약전삼계탕 '한방삼계탕'
한방 족욕으로 피로를 풀었다면, 이제 속에도 뜨끈한 한방 기운을 불어넣을 차례! 한의약 박물관 입구에서 왼쪽으로 난 골목으로 들어서면 한방삼계탕을 맛볼 수 있는 약전삼계탕이 보인다. 신선한 한약재를 적당량 가미한 덕분에 국물이 깔끔한 것이 특징. 반찬으로 나오는 훌륭한 닭동집도 서울에서는 맛볼 수 없는 별미다.

주소 대구시 중구 장관동 42-6 전화 053-253-2473 운영시간 10:00~21:00 가격 한방삼계탕 1만 1000원



숲속을 걸어요 비슬산 자연휴양림

대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팔공산. 그에 비하면 비슬산은 생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알고 보면 대구 인근의 여러 산 가운데 완만한 숲길과 울창한 나무 덕분에 산행하기 좋기로 손꼽힌다. 이런 비슬산 산자락에 자연휴양림이 자리하고 있는데, 기본 편의시설뿐 아니라 삼림욕장과 폭포 샤워장 등 놀이시설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시간을 보내기 좋다. 특히 겨울에는 40m 얼음 동굴과 빙벽, 얼음 탑, 50m 길이의 썰매장 등 전국에서 유일한 자연 얼음 동산을 즐길 수 있다.

주소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 10 전화 053-614-5481 홈페이지 www.dalseong.daegu.kr/bisulsan



Textile, Deagu Style

섬유·패션·주얼리 산업이 발달한 대구 곳곳에는 옷과 직물에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최초 염색 박물관뿐 아니라 화려한 패션 거리, 갖가지 옷감에 눈이 즐거워지는 재래시장까지. 대구 스타일의 매력에 푹 빠져보자.

트렌드 중심지 야시 골목

대구에서 옷 좀 입는다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골목. 대구 최대 변화가인 동성로에 위치하고 있다. 야시는 여우라는 뜻을 가진 대구 사투리로, 아가씨들이 즐겨 찾는다는 이유로 붙여진 이름. 길 규모는 서울 명동 등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개성 넘치는 로드 숍과 수제 가게, 분위기 좋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가득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서울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수제화 가게와 스카프 전문 숍 등 전문적인 특색을 갖춘 가게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찾아가는 법 대구시 중구 삼덕동 고려양봉원에서 금융결제원에 이르는 도로변 일대



염색의 역사 자연 염색 박물관

산과 들에서 나는 풀과 꽃 등의 천연 재료를 이용한 염색을 주제로 한 박물관. 국내 최초 염색 박물관으로 섬유와 염색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다. 1층의 세계 공예예술실과 갤러리 아원은 니트, 자수, 한지, 금속 등 전 세계 갖가지 공예품과 색색으로 염색된 직물이 전시된 곳. 2층에는 우리 조상의 숨결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염색 도구와 자연 염색 섬유가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다. 한 땀 한 땀 놓인 문양과 어디서도 보기 힘든 자연의 색을 차분히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주소 대구시 동구 종대동 467 전화 053-743-4300 운영시간 화~일요일 10:00~17: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성인 3000원, 중·고등학생 2500원, 초등학생 1500원 홈페이지 www.naturaldyeing.net

푸근한 재래시장 서문시장

대구의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재래시장. 대구 성곽 서쪽에 있어서 서문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1920년대에 일본에 의해 부지가 매립되면서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 섬유와 도시답게 각종 원단과 옷감, 속옷부터 코트에 이르는 의류가 주종을 이룬다. 이외에도 그릇·건해산물·공예품 등이 즐비한데, 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든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데다 푸근한 인심 역시 여전히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대구 여행, 재미 더하기 이월드

대구 대표 놀이동산.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비하면 조출하지만 번쩍이는 화려함을 대신하는 빈티지한 분위기가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놀이동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롤러코스터와 회전목마를 포함한 35개 놀이기구가 사람들을 반긴다. 1년 365일 내내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지고, 곳곳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어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주소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산 302-11 전화 053-620-0001 입장료 어른 1만 2500원, 청소년 8500원, 어린이 7000원 홈페이지 www.eworld.kr



저예산 여행의 기술

For Your Budget Travel

여행 일정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계획할 수 있다.
단지 문제는 '돈'이라는 것.
마음껏 정한 스케줄의 실현 가능성은
철저히 예산에 근거한다.
하지만 좀 더 경제적으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저비용항공, 호텔 예약 사이트,
여행 패스를 통해 알뜰하게 챙긴 예산으로
더욱 실속 있는 여행을 떠나보자.



낮아진 하늘의 문턱, 저비용항공

해외로 떠나는 여행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항공권이다. 항공편에 따라 일정 수준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항공권 구매 사이트를 검색해도 금액별로 큰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 예산을 확 낮춰줄 방안이 있으니, 바로 저비용항공(Low Cost Carrier)이다. 발권, 수하물, 기내식, 자리 배정 등을 유료화하는 대신, 평균 운임에서 30~50% 할인된 항공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즉 낮은 운임으로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해 가격적인 면에서 항공권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 때문에 일반 항공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음료, 기내식, 담요 등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론 공항 및 기내 승무원을 최소화해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일반 항공사를 이용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을 포기하기는 아쉽지만, 이런 사항들이 중요하지 않다면 총 비용 절감을 위해 과감히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 저비용항공을 이용할 때도 항공권 변경 및 취소·환불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변경할 때 추가 요금을 요구하며, 취소·환불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운영한다. 하지만 특가 항공권의 경우 '환불 불가'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될 수 있으니, 규정을 꼼꼼하게 읽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Jetstar



AirAsia.com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저비용항공을 이용한 항공 스케줄이 대폭 확대되면서 항공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 대표 주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인 에어아시아(Air Asia), 한국, 일본, 홍콩, 타이베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포함 21개국 82개 도시를 운항한다. 휴대 수하물 규정은 7kg 이하, 삼면의 합이 115cm 이하인 상태로 1개만 무료로 허용되며, 위탁 수하물은 무료 없이 15kg 기준에서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한다. 좌석을 선택하고 싶다면 출발 1시간 전까지 유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옆 좌석을 비우는 옵션도 있다. 기내식을 미리 예약하면 15% 할인된 가격과 함께 생수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알뜰하다. 에어아시아와 더불어 제트스타(Jet Star) 역시 점점 아시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베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홍콩, 태국 등 14개국 52개 도시를 오간다. 기본 규정은 대부분 에어아시아와 비슷한 수준인데, 제트스타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항공권 티켓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항공권 날짜와 시간은 비용을 지불한 뒤 변경할 수 있지만, 환불은 애초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히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클릭! 호텔 예약 사이트

항공권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숙박 요금이다. 그럼에도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 대신 호텔에서 머물고 싶다면,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호텔을 예약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다. 특급 호텔부터 저렴한 에어텔까지 다양한 가격을 제시해 실시간으로 예약을 대행한다. 호텔 예약 사이트가 보유한 호텔 가운데 원하는 날짜와 객실로 체크인 가능하며, 이때 다양한 호텔 사진과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리뷰를 읽을 수 있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여름휴가 등 특별 시즌이 다가오면 기간에 맞는 호텔에 특별 서비스를 추가해 추천해준다. 때로는 호텔 트렌드나 세부 정보를 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항공권과 같이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을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어디까지나 구매 '대행' 사이트이기 때문에 호텔 예약 사이트와 호텔, 소비자 사이에 문제를 두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 법인은 지점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있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전 세계 24개국에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 중인 익스피디아(www.expedia.com)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과 더불어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차이니스 타이베이 등의 아시아 지역을 지원한다. 약 3만 개 도시에서 15만 개 호텔 네트워크를 보유하며, 호텔 예약은 물론 항공권, 렌터카, 패키지 여행도 제공한다. 총 1100만여 건이 넘는 실제 여행객들의 개별적인 여행 후기가 지원되며, 지도와 날씨 예보, 360도 호텔 가상 체험과 같은 여행 계획 도우미 기능도 체험할 수 있다. 익스피디아에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조건으로 호텔을 검색했을 때 타사의 제공가격이 더 낮을 경우 익스피디아에서 그 차액

과 함께 할인 쿠폰을 준다는 규정이다. 확실히 저렴하게 숙박 일정을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다. 그 밖에 GPS 기능을 탑재한 익스피디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가까운 호텔과 만나도록 도와준다. 익스피디아 외에 호텔 예약 사이트로 호텔스닷컴(www.hotels.com), 아고다(www.agoda.com), 호텔엔조이(www.hotelnjoy.com) 등이 있다.





독특한 여행 패스

세계 곳곳에는 여행자를 위한 여행 패스(Travel Pass)가 생각보다 많다. 여행 패스는 자유 여행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하나로 압축된 카드로 패스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박물관 및 유적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핵심 명소만 콕콕 집어내며, 여행자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헤아려 폭넓은 할인 혜택도 선사하는 것. 단, 패스별로 2가지 유효기간 구별법이 있다. 패스를 처음 사용한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거나, 개시한 당일 자정까지 1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유효기간을 미리 체크해놓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 패스를 잃어버리는 순간 물거품이 된다. 대부분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으니, 분실에 주의해야 한다.

여행 패스는 유럽에서 좀 더 활성화되긴 했지만, 아시아에도 꽤 괜찮은 패스들이 있다. 일본의 경우 오사카, 고베, 교토 등 간사이 지방의 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간사이 스루 패스(Kansai Thru Pass)가 있다. 외국인 여행자만 구입 가능한 패스로 간사이 전 지역의 버스, 지하철, 전철(JR 제외)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노선 주변의 주요 관광 시설 350곳의 우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히메지 성, 고베 포트 타워, 오사카 성 천수각 등은 최대



30%까지, 아리마 온센 등 지역별 온천은 최대 20%까지 할인된다. 성인 기준으로 2일권 3800엔, 3일권 5000엔이며, 간사이 스루 패스 홈페이지(www.surutto.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복잡한 요금표를 봐야 할 필요가 없고, 갈아탈 때마다 표를 다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차이니스 타이베이에는 명소 입장, 교통, 숙박, 음식 등 할인이 다양한 유스트래블 카드(Youth Travel Card)가 있다. 이름처럼 만 15~30세 여행자만 구매할 수 있는 패스다. 국립 고궁 박물관,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101 전망대, 미라마 엔터테인먼트 파크, 타이베이·가오슝 크루즈 투어 등이 할인되며, 유스호스텔 또한 최대 15% 할인 가능하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유스트래블 카드가 무료라는 것.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면 무척 아쉬울 혜택이다. 타오위안 국제공항을 포함한 13개 공항, 기차역, 전철역 등의 서비스 센터 및 대학교 여학연수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 December 2012



한국, 제주 | 10월 26일 ~ 12월 31일
제주 루미나리에 빛의 축제
 장소 제주 월드컵경기장 내 야외공원

수만 개의 오색 전구가 제주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환상적인 루미나리에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공연, 전시, 소원 성취 플레이스, 야광 체험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부대 행사인 공원 내 세계 풍물시장에서는 세계 20여 개국의 풍물과 먹거리가 전시, 판매되며 전국 8도의 먹거리 장터도 열린다.



한국, 대전 | 11월 29일 ~ 12월 2일
2012 베이비 페어
 장소 대전 컨벤션 센터

태교부터 육아까지, 예비 부모와 육아 중인 부모를 위한 박람회 열린다. 소중한 아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출산·육아 관련 필수 물품과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임신 관련 정보와 출산 후 신체 관리 등 예비 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은 태교와 유아 조기교육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전시한다.



한국, 광주 | 11월 30일 ~ 12월 2일
국제 뷰티&의료 관광 박람회
 장소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주에서 뷰티와 의료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박람회가 열린다. 헤어·메이크업·네일·스파 등 각종 뷰티 관련 업체들을 비롯해 건강보조식품, 의료 기기, 의료 기관, 의료 관광 관련 업체들이 참여해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부대 행사로 뷰티 및 헬스 케어, 의료 관광 관련 학술 세미나가 진행된다. 전라도의 우수한 의료 관광 상품도 소개될 예정.



한국, 부산 | 12월 1일 ~ 1월 6일
제4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
 장소 부산 광복로 일대

부산시 광복로에 크리스마스 트리 향연이 시작된다. 12m 높이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길이 390m에 이르는 환상적인 빛의 터널, 화려한 빛 조형물이 두 눈을 사로잡는다. 추억을 쌓는 포토존, 소망을 담은 트리, 공연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된다. 2011년 TPO에서 선정한 최고의 축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 12월
세데카 부미
 장소 수라바야 시 삼비케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에서는 매년 12월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세데카 부미 축제가 열린다. 자바 섬 일대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성대한 전통 축제로, 신께 감사하는 의미로 수확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을 바치는 제사를 올리고 이를 기념하는 전통 인형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차이니스 타이베이, 타이난 | 11월 10일 ~ 1월 6일
2012 관즈링 온천 음악 축제
 장소 관즈링 온천 일대

미네랄이 풍부한 회색 온천수로 유명한 관즈링 온천. 온천 마을 일대에서 9주간 신나는 음악 축제가 열린다. 낮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주말 밤에는 미니 콘서트가 흥겨운 겨울을 책임진다. 온천 일대의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축제 기간 동안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하니 겨울 온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눈여겨볼 것.



말레이시아, 멜라카 | 11월 10일 ~ 1월 1일
말레이시아 이어 엔드 세일 축제
 장소 말레이시아 멜라카

겨울의 멜라카는 쇼핑 천국! 메가세일에 이어 연말 세일이 시작된다. 재고를 남기지 않으려는 말레이시아 유통업계 특성상 연말이 되면 큰 폭의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로컬 브랜드부터 명품까지 시내 곳곳의 매장이 세일에 돌입해 행복한 비명이 터져나온다. 올 겨울, 따뜻한 말레이시아로 쇼핑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떨까.

1 January 2013



한국, 부산 | 12월 31일 ~ 1월 1일
2013 해맞이 부산 축제
 장소 용두산공원, 해운대해수욕장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2012 해맞이 부산 축제. 12월 31일 밤에는 용두산공원에서 시민의 종 타종식과 송년을 악제, 불꽃 축제가 열리며, 1월 1일 오전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임진년 해맞이 축하 공연과 소망풍선 날리기, 선박 해상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광안대로에서도 오전 5시부터 전통 공연, 소망엽서 보내기, 광안대교 사진전 등이 시작된다.



한국, 울산 | 1월 1일
울산 간절곶 해맞이 축제
 장소 간절곶 일대

2013년 첫 해돋이를 가장 먼저 보고 싶다면 간절곶이 정답이다.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데다 울산시 12경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절경이라 매년 해맞이 축제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다. 널뛰기, 연날리기 대회 등 다양한 민속놀이 대회가 열리며, 지역 문화 예술단체의 초청 공연, 노래자랑,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해맞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한다.



한국, 안동 | 1월 중순
2013 안동 암산 얼음 축제
 장소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38-4 암산유원지 일원

자연이 만든 천연 얼음 세상, 안동 암산유원지 일대에서 신나는 겨울 축제가 펼쳐진다. 스케이트와 썰매, 빙어낚시, 얼음축구 등 겨울철 놀거리가 풍성하고 얼음 궁전, 얼음 조각 등 볼거리도 많아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부대 행사로 초대 가수들의 공연과 노래자랑이 진행될 예정. 주변에 캠핑장이 있어 1박2일 여행 코스로 좋다.



차이니스 타이베이, 타이난 | 12월 31일 ~ 1월 1일
타이난 새해 축제
 장소 차이니스 타이베이 고속철도 타이난 역

타이난 새해 축제는 일반적인 해돋이 행사에 비해 조금 특별하다. 먼저 타이난 시의 중심지인 타이난 역 일대에서 2012년의 마지막 해넘이를 감상한 뒤, 카운트 다운 파티를 즐긴다. 마지막으로 해가 뜨기 전 가까운 산에 다 함께 올라 2013년 첫해를 반긴다. 이 세 코스에 모두 참여한 사람에게는 상품도 주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하다.



일본, 후쿠오카 | 1월 3일
다마세세리 축제
 장소 일본 후쿠오카 현 히가시 구

다마세세리는 매년 수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축제로 풍어와 풍작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다. 육지 팀과 바닷가 팀으로 나뉜 알몸의 남성 참가자들이 차가운 물을 몸에 맞아가며 서로 다마(구슬)를 빼앗는 행렬을 이어간다. 육지 팀이 이기면 풍작, 바다 팀이 이기면 풍어의 의미가 담겨 양 팀 간에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진다.



차이니스 타이베이, 가오슝 | 1월
가오슝 등불 축제
 장소 가오슝 아이허(愛河) 일대

매년 음력 1월 15일에 열리는 가오슝 등불 축제. 옛날부터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열렸던 행사로 수천 개의 등불이 거리를 아름답게 밝힌다. 십이 지신의 형상을 본떠 만든 메인 등불과 용, 봉황, 사자, 물고기 등의 대형 테마 등불이 관광객의 시선을 끈다. 용·사자춤, 곡예 공연 등 여러 민속 행사가 열려 더욱 다채롭고 화려한 축제를 만든다.



일본, 오사카 | 1월 9 ~ 11일
도가 에비스 축제
 장소 일본 오사카 이마미야에비스 신사 일대

‘도가 에비스’는 상업의 도시 오사카답게 상업의 신 에비스를 모시는 축제. 사업이나 장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 3일간 열리는 축제에 매년 100만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게이샤 소녀들이 등장하는 ‘가치마이리(walking visit)’가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2 February 2013



한국, 인천 | 12월 말 ~ 2월 말
강화 빙어 축제
장소 강화도 황청저수지 일대

빙어낚시의 계절이 왔다. 강화도 외포리항 바다 옆에 위치한 황청저수지는 1급수의 맑은 물로 유명한 낚시터. 한겨울 공공 연 저수지의 얼음을 깨고 빙어를 잡는 손맛 짜릿한 즐거움에 매년 관광객이 붐빈다. 연날리기 등 가족 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들을 위한 썰매, 얼음 미끄럼틀 등 다양한 놀거리가 있어 겨울철 연인, 가족, 친구들과 끼리 나들이 코스로 인기가 많다.



한국, 광주 | 2월 5 ~ 6일
광주 고싸움놀이 축제
장소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광주시 남구 칠석동 옷돌마을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마다 주민들의 고싸움놀이가 열린다. 고싸움놀이는 기가 센 터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이어져온 세시풍속으로, 벗짚으로 만든 고를 타고 상대방 고를 먼저 바닥에 눌러 앉히는 팀이 이기는 놀이다. 고싸움놀이 외에도 민속놀이 체험, 모듬북과 사물놀이, 달집 태우기, 불꽃놀이, 풍등 날리기 등 다양한 민속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한국, 광주 | 2월 5일
빛고을 정월대보름 한마당
장소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일대

설과 대보름을 맞아 신나는 민속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정월대보름은 한 해 액막이를 하는 기복 행사로 부럼 깨물기, 더위 팔기, 귀밝이술 마시기 등을 하며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날. 주요 행사로 길놀이, 당산제, 마당밭이, 연날리기, 줄다리기, 토정비결 보기 등이 열린다. 가족, 친척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신명나는 축제.



일본, 나가사키 | 2월 10 ~ 24일
일본 나가사키 등불 축제
장소 나가사키 신지
차이나타운 일대

이국적 정서가 넘치는 나가사키에서 음력 설을 맞아 화려한 등불 제전이 열린다. 약 1만 5000개의 랜턴이 나가사키 마을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이고, 나가사키의 전통 공연인 용춤과 중국의 사자춤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진행된다. 거리를 수놓는 화려한 퍼레이드가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든다. 중국식 나가사키 짬뽕 등을 파는 먹거리 장터도 열린다.



일본, 오이타 | 2월 중순 ~ 3월 초
오이타 요시노 매화 축제
장소 오이타 현 오우메시
매화공원 일대

2월의 요시노는 연분홍빛으로 물든다. 오이타 현의 오우메시 매화공원 일대에 홍매화와 흰매화가 만개해 장관을 연출한다. 매년 30만 명 이상 찾는 축제 퍼레이드와 향토 축제, 다회, 거문고 연주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이뤄진다. 주변에 요시카와 에이지 기념관, 오메기 모노 박물관 등 관광 명소가 많아 함께 보면 좋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 2월 8 ~ 15일
얼음 조각 축제
장소 바이칼 호수 인근
리스트반카시 일대

아름답고 청명한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일주일간 얼음 조각 축제가 열린다. 러시아 각지에서 온 얼음 조각가들이 거대하고 환상적인 얼음 천국을 만들어 내 낭만적인 겨울을 선사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얼음 슬라이드와 얼음 수영장, 이색적인 얼음 레스토랑 등 얼음을 주제로 한 다양한 놀거리가 시선을 끈다.



태국, 방콕 | 2월 9 ~ 10일
중국 신년 축제
장소 차이나타운 일대

매년 음력 1월 1일이 되면 방콕 차이나타운 일대가 붉게 물든다. 춘절(春節)이라 불리는 중국의 설을 맞아 차이나타운 곳곳에서 사자춤과 용춤 등 전통 공연이 열리고, 밤이 되면 아름다운 등불이 거리를 화려하게 밝힌다.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즐기는 성대한 퍼레이드와 불꽃놀이가 축제의 하이라이트!



부산, 한국

투어리즘 유니버시아드 2012 개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2012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부산광역시, 영산대학교와 공동으로 '투어리즘 유니버시아드 2012(Tourism Universiade 2012)'를 부산시청과 영산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아시아·태평양 도시 지역 대학생들의 문화 관광 교류와 관광 전문가 육성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9개국 24개 도시에서 온 96명(총 48개 팀)의 학생들이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각자 출신 도시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경연과 세미나, 부산시 관광 자원 시찰로 구성됐으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경연은 요리 경연 부문과 도시 여행 상품 기획, 두 부문에서 경연 대회가 실시됐다. 요리 경연에서는 참가자들이 출신 도시의 전통 요리를 현장에서 직접 요리해 심사위원과 참관자들에게 소개했고, 도시 여행 상품 기획 경연에서는 역시 출신 도시의 새로운 관광 상품을 기획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의 경연 결과, 영예의 금상은 도시 여행 상품 기획 분야에 광저우 시의 싱 린(Xiang Lin) 씨와 리 시아오 준(Li Xiao-Jun) 씨 팀이 차지했으며, 요리 경연 분야는 가오슝 시의 싱 린 우(Shing-Lin Wu) 씨와 신 하오 리안(Shin-Hao Lian) 씨가 차지했다. 이번 '투어리즘 유니버시아드 2012'에서는 금상, 은상, 동상 외에도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대전시장상 등 총 29개 상이 수상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참가한 대학생들이 다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투어리즘 유니버시아드 2012에 참가한 학생들.



페낭, 말레이시아

제5회 TPO 포럼 및 실무자 대표회의 개최

제5회 TPO 포럼 및 실무자 대표회의가 2012년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 시 조지타운에서 열렸다. 총 24개 도시에서 100여 명의 도시 대표들이 참석한 본 포럼은 '세계유산의 보호와 개발(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World Heritage)'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에코투어리즘과 자연환경 보호(Protec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Eco-tourism)' 및 '세계유산 보호와 개발 및 관광(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World Heritage and Tourism)'이라는 강연과 패널 토론을 비롯해 고위급 원탁회의, 실무자 대표회의, 세계유산 캠페인 등 다채로운 세션과 행사로 꾸며졌다. 차기 포럼은 2014년에 개최되며, 2013년에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에서 제6회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계림, 중국

TPO 사무총장, UNWTO 포럼 연설

TPO의 주한명 사무총장은 중국 계림(桂林) 시에서 열린 '제6차 UNWTO/PATA 관광산업 현황 및 전망 포럼'에 연사로 참석했다. 홍콩 폴리텍 대학교와 계림 시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2012년 10월 11일에서 13일까지 3일간 '관광지 홍보와 관광 상품 개발', '사업 활성화와 관광 분야 혁신', '지속 가능한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이뤄졌다. 아태 지역 70여 개 도시가 참여한 국제 관광 기구에서 지난 10년간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주한명 총장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살려 '관광지 마케팅에 있어서의 도시 간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과거 TPO가 국제 도시 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할 기회를 가졌다.



제5회 TPO 포럼 및 실무자 대표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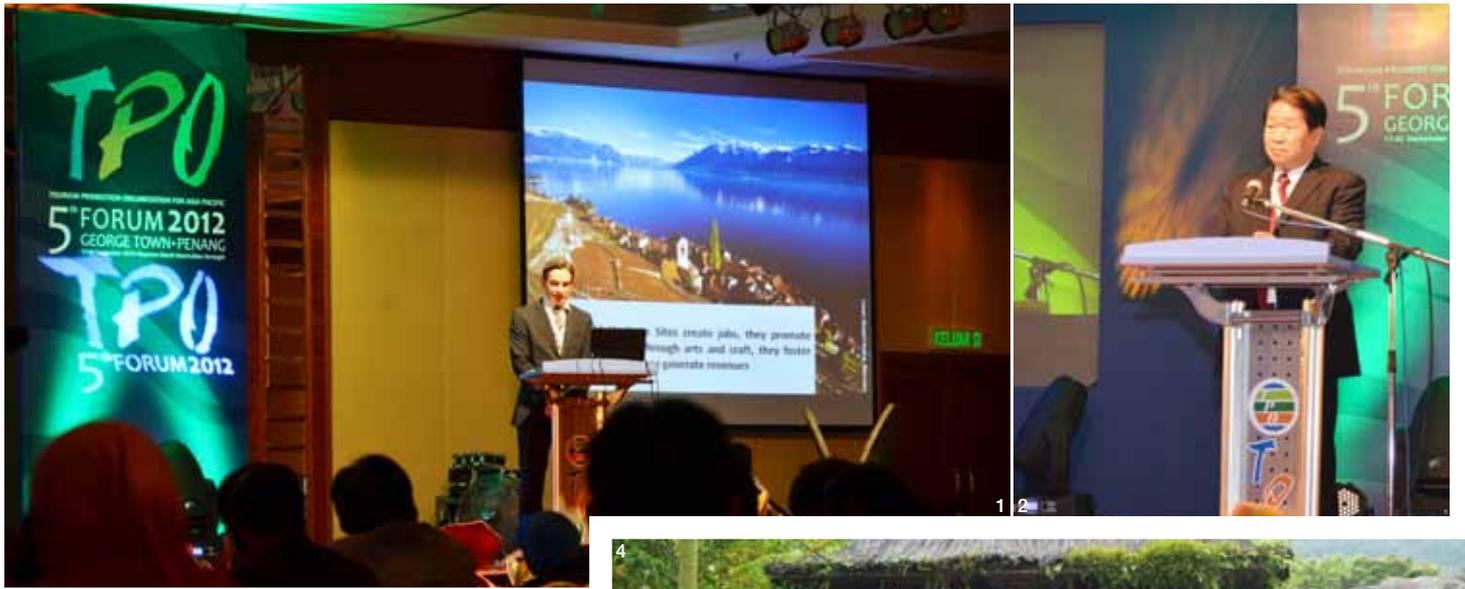
에코투어로 세계유산을 지킨다



유네스코와 각국 정부, 민간단체, 여행사가 세계유산(World Heritage)의 보전을 위해 힘을 합쳤다. 세계유산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해 TPO 회원국 24개 도시, 6개 민간단체에서 온 100여 명의 회원들이 말레이시아 페낭 시 조지타운에서 포럼과 실무자 대표회의를 열었다.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에코투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에 앞장서기 위해 2012년 9월 17~20일 4일간 '세계유산의 보호와 개발(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World Heritage)'이라는 주제로 '제5회 TPO 포럼 및 실무자 대표회의'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지역인 말레이시아 페낭 시 조지타운의 베이뷰 비치 리조트(Bayview Beach Resort)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이전과 달리 회원 도시의 시장과 부시장을 초대해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고, 세계유산의 보호·개발과 더불어 회원 도시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9월 18일 오전, 개회식과 함께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됐다. 기조 연설자로 초청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스페셜리스트인 피터 드브린(Peter Debrine)은 '세계유산과 지속 가능한 관광(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세계유산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발하고 보호하는 일은 필수가 됐으며, 이에 유네스코는 정부와 민간단체, 여행사들과 협력해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많은 참석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날 오후, 첫 번째 포럼 본 세션은 '에코투어리즘과 자연경관 자원 보호(Protec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Eco-tourism)'라는 주제에 따라 말레이시아 자연사회 자문위원인 령 여 켈(Leong Yueh Kwong) 박사가 '말레이시아의 에코투어리즘'을 발표했다. 이에 대표적인 에코투어리즘 도시인 한국 부산시, 말레이시아 이포 시, 차이니스 타이베이 타이난 시의 각 도시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해 담당 도시의 에코투어리즘 정책 및 행사를 소개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저녁에는 환영 만찬과



1.기조 연설 중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피터 드브린(Peter Debrine). 2.TPO 운영위원회 의장 리 지신(Li Zhixin,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Members of TPO)의 오픈링 연설. 3.그래피티 중인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장(Mayor of Surabaya, Ms. Tri Rismaharani). 4.관광자원 시찰에 참여 중인 TPO 회원들.



촬영 만찬 공연.



제5회 포럼에 참가한 회원도시 대표들.



TPO 베스트 어워드 수상자들.

함께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뤄졌다. 9월 19일 오전에 이루어진 두 번째 포럼 본 세션의 주제는 '세계유산 보호와 개발 및 관광(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World Heritage and Tourism)'으로 필리핀 ISC20C의 건축가인 도미니크 갈리시아(Dominic Galicia)가 '세계유산의 개발과 보호를 통한 관광산업의 향상 : 필리핀 사례(The Enhancement of the Tourism Industry through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Philippine Cases)'를 발표했다. 본 세션에서도 많은 세계유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진주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말레이시아 페낭 시의 도시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해 담당 도시의 세계유산 자원과 이를 보호,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서 진행된 회원 도시 사례 발표에서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한국 창원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가 각 도시의 관광 자원 보호와 개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후에 열린 'TPO-페낭 세계유산 캠페인'에서는 첫 번째 TPO 친선 공원 조성을 기념해 도시 대표들의 도시 기념 식수 및 세계유산 축제 방문 등 다양한 내용으로 행사가 꾸며졌다. 이날 저녁의 환송 만찬과 함께 개최된 'TPO 베스트 어워드'에서는 10개 부문에서 11개 도시와 1개 민간회원이 수상의 영광을 가졌다.

〈TPO 베스트 어워드 수상자들〉

번호	부문	수상 도시
1	베스트 마케팅 캠페인	페낭 시 조지타운, 말레이시아
2	베스트 브로슈어	호찌민, 베트남
		타이중, 차이니스 타이베이
3	베스트 인쇄 광고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4	베스트 웹사이트	부산 중구청, 한국
5	베스트 방송 광고	광저우, 중국
6	베스트 도시 관광 경영자	코타키나바루, 말레이시아
7	베스트 축제/이벤트	창원, 한국
8	베스트 프로모션 CD	대구, 한국
		엔타이, 중국
9	베스트 홍보 캠페인	대전, 한국
10	관광산업 리더	다렌 고련국제여행사, 중국



1. TPO 상징물에 사인하고 있는 다토 파타히야 이즈마일(Dato^o Patahiyah Ismail) 말레이시아 페낭 시 시장.
 2. TPO 친선 공원 개장 행사에 참여한 김은숙 한국 부산시 중구청장. 3. TPO 친선 공원의 상징 조각 작품을 만
 저보는 TPO 회원들. 4. TPO 회원들이 기념 식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페낭 시에 개장한 제1호 TPO 친선 공원

2012년 9월 19일, 말레이시아 페낭 시 조지타운에서 첫 번째 TPO 친선 공원이 개장됐다. TPO 친선 공원 조성은 제5회 TPO 포럼 주최 도시인 페낭과 TPO 회원 도시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TPO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페낭 시내에 위치한 3500㎡ 규모의 TPO 친선 공원은 E&O 호텔, 블루 맨션 등 페낭의 유서 깊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어 TPO와 회원 도시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협력 관계를 알리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공원 개장식에는 한국 김해시, 부산시 중구청,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회원 도시 대표자들이 모여 각 도시를 대표하는 나무를 심었으며, TPO 상징물 공개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향후 친선 공원은 페낭 시 아일랜드 시의회에 의해 관리·운영될 예정이며, TPO 친선 공원 조성 희망 도시가 있을 경우 계속 그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Get back to nature
Golfing at tropical SANYA!
Be among the best at an international golf city





Blue Sky,
Turquoise Sea,
World Class Marina,
Tropical Island Sailing!



Love Life Love SANYA

